

일본의 ODA동향

: ODA 일원화 추진 동향

1. 2006. 2월 ODA 일원화 최종보고서 이후 동향

개편이 순조롭게 진행

- 2006.4월 해외경제협력회의의 설치, 2006.8월 다자 및 양자 차원의 ODA 업무를 총괄할 외무성 국제협력국 발족, 2006.11월 “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”(일명 JICA법) 개정안 국회 통과(발효는 2008.10월) 등 ODA 체제
- 총리 및 소수의 각료가 참여하는 해외경제협력회의는 ODA 기본전략 및 방향성을 수립하고, 외무성은 관계성청과의 협조하에 ODA 정책을 기획·입안하며, 2008.10월 이후 출범하는 신JICA는 이러한 정책을 일원적으로 실시

〈 ODA 전략, 기획·입안, 실시 체제 〉

총리를 의장으로 한 해외경제협력회의	전 략	o ODA 전략, 주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 방식 등 중요 사항 심의
외무성이 관계성청과 협력하에 ODA 정책 조정	기획·입안	o 전략적·효과적인 ODA 정책 기획·입안
		o 외무성 국제협력국 신설을 통한 양자 ODA와 다자 ODA의 연계 강화
		o 안건 작성 단계에서부터 외무성 지역국 등이 참가, 외교 전략을 반영한 원조 체제 확립
		o 성과 중시의 효율화 추진
		o NGO, 민간기업과의 연계 강화
		o 재외 공관을 활용한 안건 형성
JICA로의 ODA 실시 일원화	실 시	o 기술협력, 엔차관, 무상자금협력의 일원화를 통한 ODA 수단간의 synergy 효과 유도

2. ODA 실시 체제 일원화 동향

- 2006.11월 국회 통과된 JICA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신JICA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중이며, 2008.10월 일본정책금융공고(日本政策金融公庫)의 출범과 동시에 JICA법 개정 내용이 발효 예정
- 신JICA는 2008.10월부터 현재 JICA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협력 사업 외에, 외무성으로부터는 무상자금협력 사업을, 그리고 국제협력은행(JBIC)으로부터는 유상자금협력(엔차관) 업무를 승계하여 ODA 실시의 일원화를 달성
- 다만, 지진 피해 등에 대한 긴급원조 등 타이밍이 중요하거나, 해외주재 대사관의 판단하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무상원조(1,000만엔 미만)에 대해서는 외무성이 2008.10월 이후에도 계속 담당
- 또한, 현재 13개 성청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협력 사업(전체 기술협력 사업중 약 40% 차지)

은 각 성청의 특성 및 그간의 Know-how를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8.10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각 성청이 담당

- 현 JBIC의 엔차관과 국제금융 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은 2008.10월 이후 각각 신JICA와 신설되는 일본정책금융공고로 승계된 후 JBIC은 사라지나, 다만 JBIC의 해외 인지도(brand 가치)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정책금융공고의 국제금융 업무 수행시 [JBIC]이라는 brand는 계속 사용

3. 관련 사이트

한편,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ODA 정책 동향을 아래 사이트에 update중임을 참고바람
www.mofa.go.jp/policy/oda/index.html (영문)
www.mofa.go.jp/mofaj/gaiko/oda/index.html (일본).

[자료 : 주일본국대사관]